

김포마루+

2022 01

MONTHLY MAGAZINE vol.227

발행인 김포시장 발행처 김포시청 홍보담당관 주소 10109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구독문의 031-980-2066 김포시와 함께하는 세상읽기 김포시 뉴스포털(김포마루) gimpomaru.gimpo.go.kr
김포마루웹진 김포가 좋다 m.post.naver.com/gimpo2010 뉴스레터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메일 발송 우편 구독신청(무료) 전화 031-980-2066 팩스 031-980-2059 홈페이지 gimpo.go.kr
소통하는 도시, 김포 SNS 페이스북 facebook.com/gimpocity.kr 블로그 blog.naver.com/gimpo2010 트위터 twitter.com/gimpomaru 인스타그램 instagram.com/gimpo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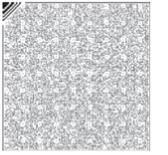


함께가는 평화의길

용맹스럽고
힘찬 임인년 되시길
바랍니다

공화신년

한강 철책길에서 바라본 일출



김포시 50만 대도시 진입 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



김포시 인구는 지난 1998년, 인구 13만 명의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이후 그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로 연평균 인구 증가율 7%라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가파른 성장을 거듭한 끝에 23년 만에 50만 인구의 대도시 진입에 성공하게 된다. 김포시는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발전전략과 행정체계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정리 편집실(J) 자료제공 행정과

김포시가 2022년 1월 13일자로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는 18번째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령이 1월 13일자로 시행되면서 기존에 주민등록 인구만을 따지던 인구 인정기준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는 48만 6,123명이고 여기에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2만 5천여 명을 더하면 이미 50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인구이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인구 50만을 유지하면, 2023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가 적용된다.



적극적인 특례 발굴로 행정절차는 줄이고 시민편익은 늘린다

대도시 특례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례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기존에 경기도에서 처리하던 사무 중 일부를 김포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게 된다.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게 되면 시가 직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를 처리하게 되고, 지방공사·공단 설립,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도 함께 적용돼 김포의 지역 상황과 미래가치, 성장 잠재력에 걸맞은 각종 개발사업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재정상 특례도 적용받아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시민편익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종전에 18개 분야 42개이던 사무특례를 30개 분야 120여 개로 현행화했다. 그리고 지역적 여건과 발전전략에 따른 실질적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특례를 발굴, 신청할 수도 있다.

김포는 빠른 도시화로 교통은 물론이고 상하수도나 복지,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권한과 재정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인구 50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있는 행정조직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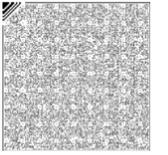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은 시의 미래가치와 시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대도시 특례 적용 후 달라지는 점(30개 분야 120개 사무)

※ 50만 인구 2년 이상 유지 시

- 경기도에서 처리하던 사무 중 일부를 김포시 권한으로 직접 처리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 처리
 - 지방공사·공단 설립, 운영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 적용
 - 지방채 발행(시의회 의결로 가능)
 - 재정상 특례 적용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확대
 - 사무처리 권한 확대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김포시는 초읽기에 들어간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김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자긍심이 되도록 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지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김포시 행정제도

2022년부터 달라지는 행정, 교육, 경제 등 관련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살펴본다.

정리 편집실(K) 자료제공 기획담당관

01

지방자치·행정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자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이 법적으로 명시됐으며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임면·징계 등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된다.

완공되는 운양환승센터에는 임대 공간인 공유오피스가 생기며 시민들의 업무공간 및 소통공간으로 활용된다. 마산동과 통진읍에 행정복지센터와 행정복합청사가 개청한다.

02

민원서비스



시 청사 안전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자출입시스템이 도입되고 별도의 민원상담공간이 운영된다. 현재 본청에서 운영 중인 비대면 계약업무는 사업소, 읍·면·동까지 확대 실시된다.

또한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전면 시행되고 여권의 우편 직배송 서비스도 시행한다.

03

교육·문화



청소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가칭 '청소년+카페 SMILE'이 개관한다.

또한 대면 교육, 동영상 교육, 실시간 화상 교육을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도 운영을 시작한다.

통진현전시관을 개관하고 아기봉평화생태공원 인근에는 생태탐방로가 조성된다.

04

복지·체육



복지 사각지대인 북부권을 책임지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제2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한다.

학대 피해 아동의 상담, 심리치료 등이 가능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고 증축 공사를 마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4월 중에 재개관 한다. 또한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 신청이 시작되고 영아수당도 신설돼 월 3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솔터축구장도 대관을 시작하며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다.

05

지역경제



행정분야 전문역량을 갖춘 퇴직인력을 활용한 민원행정지원관 제도를 운영하여 수준 높은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열고, 노동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소공인복지지원센터가 개관하고 제품 개발부터 장비 활용 및 온라인 마케팅까지 원스탑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업소당 최대 150만 원씩 음식점 주방개선을 위한 지원도 한다.

이와 함께 농민기본소득사업도 시행돼 농민들에게 연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김포페이)가 지급될 예정이다.

06

교통·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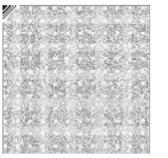


김포대로 버스전용차로(서울 방향 8km)가 연장된다.

- (현행)신사우사거리~신곡사거리 :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연장)신곡사거리~개화역 :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시간제 운영(07~10시, 17~21시)
- 시행일 : 2021. 1. 3.(월)부터(3~5개월 시범운영 예정)

김포에 개원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지역 환경전문가를 양성하는 환경교육이 추진된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일반용(재사용) 봉투는 20ㄹ기준 720원, 음식물쓰레기는 3ㄹ기준 140원으로 인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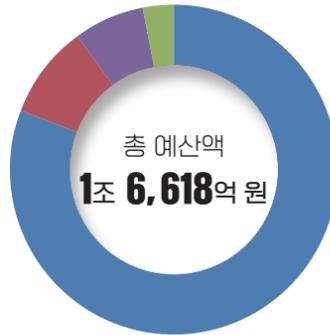


2022년 김포시 예산 이렇게 쓰입니다

김포시는 2022년도 예산을 '21년 대비 9.68% 증가한 1조 6,618억 원으로 편성 확정했다. 2022년도 예산은 '오늘이 새롭고 내일이 이로운 시민행복 도시, 김포'를 위해 △일상회복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체감형 새로운 도시 기반 인프라 조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확충 △탄소 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사업 등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급격하게 변하는 코로나 상 황 대응에 역점을 두었다. 2022년 김포시 예산이 어떻게 꾸려졌는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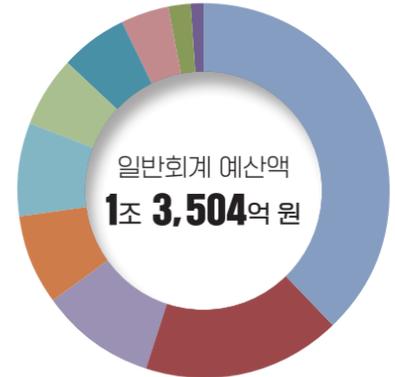
글 편집실() 자료제공 기획담당관 예산팀

2022년도 예산 규모



- 일반회계 1조 3,504억 원(81%)
- 기금 1,405억 원(9%)
- 공기업특별회계 1,172억 원(7%)
- 기타특별회계 537억 원(3%)

2022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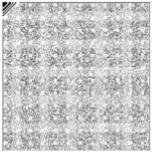
- 사회복지 5,164억 원(38%)
- 일반공공행정 2,324억 원(17%)
- 교통 및 물류 1,369억 원(10%)
- 환경 1,104억 원(8%)
- 경제 및 지역개발 1,064억 원(8%)
- 농림해양수산 844억 원(6%)
- 문화관광 803억 원(6%)
- 보건 431억 원(4%)
- 공공질서 및 안전 247억 원(2%)
- 교육 154억 원(1%)

분야별 사업

<h3>사회복지</h3> <p>5,164 억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1,418억 아동 594억 청소년 154억 청년 56.8억 노인 1,596억 장애인 523억 외국인, 다문화 17억 기초생활보장 575억 	<h3>교통 및 물류</h3> <p>1,369 억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확·포장 및 정비 499억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증차 359억 공영주차장 조성 66억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영 100억 운수업체 재정지원 205억 	<h3>경제 및 지역개발</h3> <p>1,064 억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화폐 사업 255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63억 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50억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42억 학운6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6억 시네폴리스 공업용수도 건설 29억 	<h3>보건</h3> <p>431 억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긴급방역 26.6억 의료기관 백신 접종 시행비 77억 첫만남 이용권 57억 임신축하금 15.6억 출산축하금 14.8억 경기도 산후조리비 18억
<h3>친환경 및 농림축산업</h3> <p>1,948 억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수소전기차 보급 282억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등 지원 261억 미세먼지 저감 사업 63.4억 농민기본소득 95억 기본형 공익직불제 86억 한강 술술 큐어파크 조성 25억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설립 18억 대명항 어촌뉴딜300 사업 39억 	<h3>일반공공행정 및 안전</h3> <p>2,571 억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사 신축 158억 김포시공공오피스 설치 4억 봉성재해위험지구 정비 120억 시민안전보험 5억 자전거보험 2.8억 농업인 안전, 농작물 재해, 가축재해, 수산업 안전보험 7.9억 	<h3>교육</h3> <p>154 억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환경 개선사업 60억 혁신교육지구 사업 42.9억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8.3억 교육프로그램 지원 2억 평생학습 운영 25억 	<h3>문화 및 관광/체육</h3> <p>803 억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양도서관 건립 20억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26억 부래도 관광자원화 48억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28억 체육시설 확충 263억 김포FC 운영 49.9억(리그2)

2022년 주요 특색 사업 한눈에

<h3>전 시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페이 발행 및 연중 할인 지원 255억 시민안전보험 5억 	<h3>생활밀착형 SOC</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양도서관 건립 20억 김포양곡 복합형 체육센터 69억 운양반다비 체육센터 54억 풍무체육문화센터 32억 학운체육문화센터 7억 김포스포츠클러터운 건립 11억 청소년수련관 건립 12억 	<h3>위드 코로나</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원 31억 코로나19 긴급방역 26.6억 의료기관 백신 접종 시행비 77억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5.5억 스마트 안심콜 서비스 지원 0.6억 메타버스 홍보공간 제작 0.2억 	<h3>생애주기별 지원</h3> <p>(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노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만남 이용권 57억 * '22. 1.1부터 출생아 200만 원 지급(1회) 임신축하금 15.6억 출산축하금 14.8억 영유아 보육료 552억·누리과정 지원 245억 아동수당 급여 457억 * '22년부터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청소년 교통비 지원 4.3억 청년기본소득 38억 기초연금 1,253억 	<h3>교통망 확충</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100억 평화로(월곶 중로3-4호) 개설 120억 시네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10억 누산~마근포간도로 확포장 10억 시도12호선 도로확장(전류-원산) 30억 초원지-석정(간동사거리) 도로확포장 11억 월곶 도시계획도로(갈산~군하) 확포장 25억 월곶 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 확포장 21억 양촌 도시계획도로(소로2-9호선) 개설 20억 영사정C 건설사업 3억 김포한강로 BRT 타당성 조사 2억
--	--	---	--	---



ISSUE 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개원



지난 12월 23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개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내 환경개선과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에너지 분야의 전문기관이다. 기존의 6개 위탁기관을 통합한 경기도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본부, 환경산업지원본부 등 4본부 10팀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환경개선,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운영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굴, 태양광 보급사업, 업사이클 사업화 컨설팅, 생물 다양성, 환경·물 산업 기업 육성, 환경교육 교육프로그램 기획,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환경과 980-2248

ISSUE 2

가족관계등록 민원 후속 절차 안내서비스 시행

김포시가 가족관계등록 이후 후속 절차를 민원인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정보 부재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축하금·양육수당·화장장려금 등 각종 생활 혜택과 여러 기관에 산재한 필수 신고사항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 민원 후속 절차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 출생·사망·혼인·개명·입양 등 가족관계 등록에 이어지는 지원사업 및 신고절차를 안내문에 담아 접수 시 배부 또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시민들이 가족관계등록을 마치고 나면 다양한 절차와 혜택을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했다. 자녀 출생 이후 경기I-PLUS카드, 가족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 개명 이후 운전면허증·사업자등록증 변경 등 부수적인 절차가 기관과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보에 어두운 경우 수혜 시기를 놓치거나 과태료를 내는 사례도 발생했다. 김포시는 이번 서비스로 시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여권과 980-2711

ISSUE 3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혜택 6월까지 연장



김포시가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2022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이번 연장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김포시의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교통과 980-2330

ISSUE 4

생활폐기물 수거 안내

- 수거대상 : 생활쓰레기(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
- 수거시간 : 월~금요일 06:00~15:00
토요일 06:00~10:00
- 쓰레기 배출시간(공동주택은 공동주택별 배출 일시 준수) : 평일 : 20:00~24:00

수거지역	업체명	연락처
고촌읍	(주)김포신도시환경	991-4143
풍무동	선경에코텍(주)	987-6033
김포본동	제일환경(주)	997-2771
운양동, 사우동	부일환경(주)	982-2241
장기동, 마산동, 장기본동	(주)세일환경	998-6563
양촌읍, 구래동	(주)상인	969-9061
통진읍, 하성면	(주)우림	989-9268
대곶면, 월곶면	(주)세일환경	987-0543

자원순환과 980-2798

단신뉴스

자동차세 1월에 연납 시 9.15% 세액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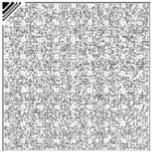
- 대상자 :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신청 및 납부기간 : 1. 16. ~ 2. 3.
- 연납 혜택 : 기한 내 납부 시 연 세액의 약 9.15% 세액 공제
- 신청방법 : [ARS] 1644-0704,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 기존 연납 신청자는 연납고지서 자동 발송
- 납부방법 :
- ARS(1644-0704) 납부
※ 본인/타인 신용카드 가능
- 인터넷(www.wetax.go.kr) 및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납부
- 은행 및 농협 가상계좌 납부
-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기)
- 문의 : 김포시청 지방세 안내 1644-8704
자동차세 담당 980-2032, 2034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2022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자
- 납부기간 : 1. 16. ~ 1. 31.
- 납부방법 : 은행, 가상계좌, ARS(1644-0704), 인터넷납부, 스마트폰납부
- 문의 : 김포시 지방세 안내 1644-8704, 등록면허세 담당자 980-2673

2022학년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 모집기간 : 1. 10. ~ 1. 21.(2주간) 09:00~18:00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내방 및 우편접수(당일 도착 한)
- 선발기준
- 김포시민(주민등록상 김포 거주)
- 신규접수자 우선(모집인원 초과 접수 시 선발 시험 실시)
- 각 과별 10% 내 2021년 졸업생 성적순으로 우선 선발
※ 선발 제외자 : 2회 이상 졸업자, 최근 2년 이내 제적자
- 학과 및 인원 : 5개 학과 200명(40명/과), 25명 미만 신청과정 폐강 예정
- 운영 기간 : 3월 ~ 12월(주 1회 3시간)
- 문의 :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 980-5076, 5218
※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www.gimpo.go.kr/agri/index.do) 참조



ISSUE 1

“일산대교 통행료 재징수 유감” 항의

“관계기관 통행료 무료화 협상에 적극 나서 시민 혼란 없어야”



김포시의회가 11월 18일 오전, 22일 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 일산대교를 찾아 통행료 무료화에 운영사 측이 적극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곡동을 잇는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개통된 BTO 방식의 민자도로로 통행료 징수를 두고 그동안 불만이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김포·고양·파주 3개 시

는 지난해 초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사업시행자 지정 공익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일산대교(주) 측은 공익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와 함께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과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을 신청해 처분효력을 본안판결까지 보류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 18일 0시를 기해 다시 요금 징수에 들어갔다.

신명순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일산대교 남단에서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일산대교(주)에 깊이 유감”이라며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 반복으로 시민 모두 큰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에서 유일한 유료다리인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주)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달라”고 입을 모았다.

ISSUE 2

김포시의회 코로나19대책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김포시의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가 12월 14일 제3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 진행해 온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계층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책 마련과 국가지원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난 2월 첫 발을 내디딘 코로나19 특위는 김포유흥업소 협회

와의 정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운수업, 건설업, 소상공인, 사립유치원 연합회 등 정부 지원 사각에 놓인 계층을 살피며 시정지원을 모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열린 제2차 추경에 집합금지업종과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생활·경영 안정지원금, 사립유치원 방역비 지원, 5일장 환경개선 등의 예산을 반영하며 정책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냈다. 또한 감염병 업무로 인해 격무기관 의견 청취, 급식이 중단된 학교급식출하회 현장진단, 인력 부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보건소 등의 어려움을 잇따라 짚으며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 왔다.

이날 마지막 열린 3차회의에서는 정하영 시장을 비롯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보건소 소장과 인력지원을 맡은 행정국장, 예산편성 지원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 등이 함께 배석한 가운데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와 코로나19에 대한 내년도 대책, 청소년 집중문제 등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

배강민 위원장은 “현실적인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위드코로나 의무교육, 감염병 검사 상시 거점 검사소와 방역소 운영, 코로나19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며,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단 신 뉴스



의회 간행물 구독 안내

김포시의회에서는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의회 간행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의회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간행물
 - 안내책자 : 의회연혁, 조직, 기능 및 의원 현황 등 수록
 - 만화책자 :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의회를 만화로 소개
 - 소식지 : 회기운영, 의정활동을 상·하반기로 소개
- 문의 : 980-2487

의회 홍보영상 시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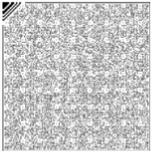
김포시의회에서는 시민에게 시의회를 알기 쉽고 친근하게 알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홍보영상을 제작해 페이스북, 유튜브, G버스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홍보영상 시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시청방법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gimpocouncil/
 - 유튜브 : ‘김포시의회’ 검색 후 시의회 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 www.gimpo.go.kr/council/index.do
- 문의 : 980-2478, 2487

김포시의회 홍보용 카드뉴스 제작

김포시의회에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의원이 발의하는 조례 등을 알기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다양하고 흥미로운 카드뉴스를 만들어 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작된 카드뉴스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시청방법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gimpocouncil/
 - 홈페이지 : www.gimpo.go.kr/council/index.do
- 메뉴 : 열린마당 - 의회홍보 - 카드뉴스
- 문의 : 980-2487



ISSUE 3

제214회 정례회 끝으로 2021년 회기 마무리



김포시의회가 제214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청취하며, 11월 25일부터 22일간 진행한 2021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2차 본회의 개최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 59건 의결

먼저 12월 10일 2차 본회의에서는 홍원길 의원의 민선7기 공약사항 관련, 유영숙 의원의 정책자문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배강민 의원의 민선7기 주요 현안 사항 관련 시정질의에 이어 안건 표결을 진행했다.

안건별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5,212억 원의 예산안은 총24건, 1,854,510천원을 감액했으며, 1,752억 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은 2건, 175,000천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김포시사 편찬 55,140천원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사업 783,370천원 △도시공원 금연구역 태양관 LED 금연표지판 설치비 중 153,200천원 △김포문화재단 사업 중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을 포함해 14개 사업 627,000천원 등이다.

배강민 예결위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 작성 △고유목적에 맞는 기금 지출 계획 수립 △세입예산 증가에 따른 꼼꼼한 세입추계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조례안 등의 처리에서 한중우 의원의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건을 포함한 10건은 원안가결하고,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은 부결했다.

또한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준비하기 위해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8건을 원안 가결했다.

기타안 중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 등 13건은 원안가결하고,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개발 방향 및 계획에 대한 근본적 논의와 시민 공론화 과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했다.

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확정,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청취

이어서 12월 16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오강현 의원의 시정 개선을 위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예결위원회의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추경에서는 3회 추경 대비 1,028억여 원이 증가한 1조 8,674억 원(기정예산 대비 5.83% 증가)이 제출돼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원안 확정됐다. 이어 진행된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배강민) 결과보고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한 활동보고와 함께 특위에서 채택한 △전 직원 대상 위드코로나 의무교육 실시 △상시 거점 검사소와 방역소 운영 검토 △장기화된 코로나19 관련 유공자 포상 등이 건의됐다.

신명순 의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래 없이 기나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고하며 “2022 임인년에는 호랑이의 힘찬 기상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해 나가자”며 올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ISSUE 4

천사의 날개 달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 전해

나눔 활동으로 취약계층에 성품 전달, 복지재단에 성금 기탁



김포시의회가 부쩍 추워진 날씨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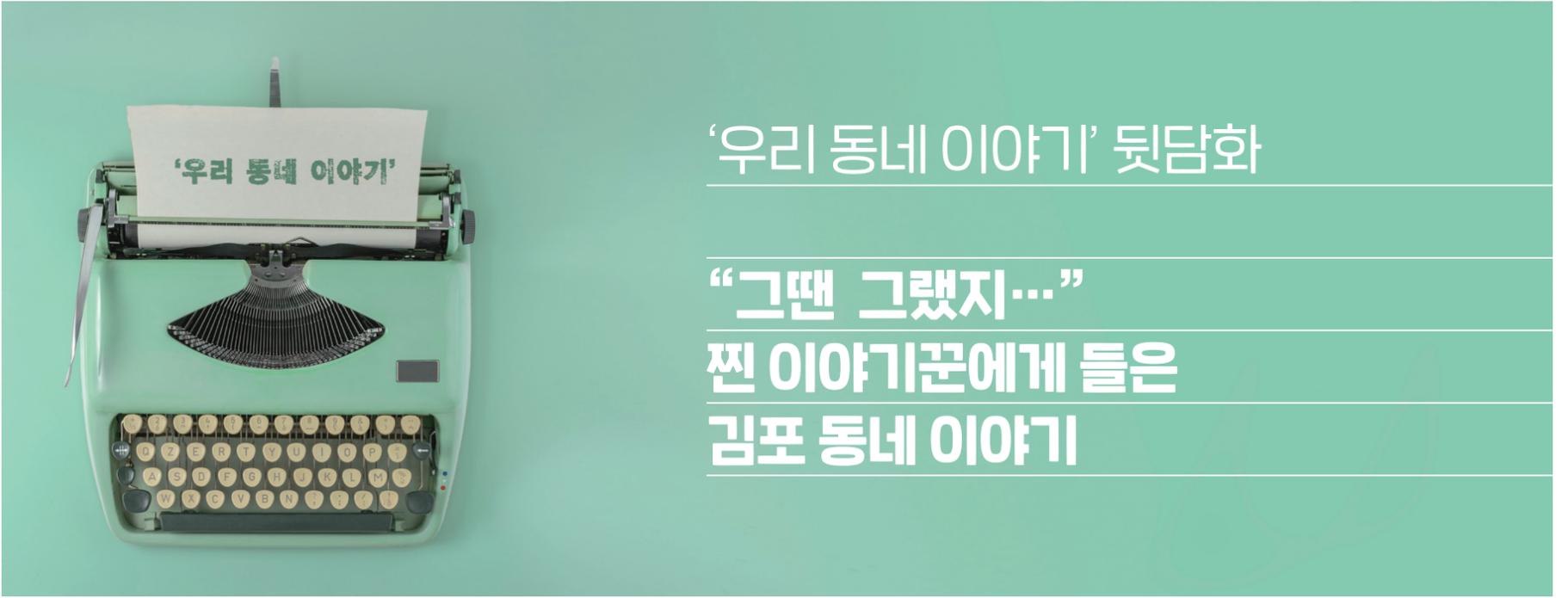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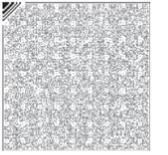
온기를 전하기 위해 12월 16일 성금 기탁과 봉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제214회 정례회를 마친 의원들은 김포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사 날개를 달다’에 동참하기 위해 봉사 대상지를 나눈 8개조를 구성했고, 어려운 이웃에 성품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달하고자 서둘러 활동에 나섰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전달 활동에서 시의원들은 사전 방문계획을 전화로 알린 후, 각자 배정받은 가정을 찾아 성품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벨을 누르고 자리를 떴다. 또한 시의원들은 김포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제9회 62일간의 나눔 릴레이’ 캠페인에도 참여해 소정의 성금을 기탁하며 마음을 전했다.

시의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취약계층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년을 달려온 '우리 동네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첫 회에는 이 코너의 콘셉트를 제대로 잡지 못해 아쉬운 기사가 나갔지만, 대곶면을 시작으로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속에 갑작스레 사라진 동네의 모습을 추억하고, 새롭게 유입된 이들에게는 내가 사는 동네의 옛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코너, '우리 동네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수근거리보았습니다.

글 편집실(L)



숨은 공로자, 동네 이야기꾼

동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동네 이야기꾼'입니다. 처음에는 '대단치도 않은 이야기인데 이런 걸 왜 물어보냐'라는 표정이었지만,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기억 저편의 이야기를 소환하여 열심히 들려주었습니다. 수위 조절(?)이 필요한 이야기, 깔깔거리며 웃었던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야기꾼의 신변 보호를 위해 기사화하지 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첫 시작을 알린 2월호 지면



무엇보다 동네 이야기꾼은 하나같이 모두 나고 자란 동네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동네에 비해 협동심이 강해 읍면 대항 체육대회에 나가면 상을 휩쓸어 왔다는 이야기, 동네가 좋아 김포의 인물은 다 이 동네 출신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물론! 모든 동네에 좋은 이야기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겨우 소개를 받아 어렵사리 연결됐지만, 인터뷰 도중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라며 거절하신 분도 있었답니다. 결국 해당 동네 이야기는 심심하게 나가게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김포 유년 시절의 배경, 넓은 평야와 한강

동네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김포평야'와 '한강'입니다. 김포의 역사와 문화, 전통, 그리고 삶의 배경이 된 이곳은 김포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도 유년시절을 즐겁게 보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논밭을 뛰어다니고, 한강에서 수영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동네 이야기에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땐일까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던 시절, 산과 들판 그리고 강물은 이들에게 풍부한 먹을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바쁜 농번기에는 아이들 일손도 귀하여 가방 던져놓고 어른들 일을 거들기도 했지만, 그것도 행복한 추억거리임에 분명했습니다. 한강과 김포평야는 지금도 김포를 대표하는 중심입니다. 도시개발로 많은 논밭이 사라졌고 이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김포평야는 여전히 든든한 곳간이며, 한강 물줄기 역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쉽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넘어 이제 김포의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품고 있는 것 역시 한강과 김포평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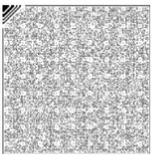
'우리 동네 이야기' 7월호 지면



'우리 동네 이야기' 9월호 지면

결국 사람 이야기가 김포의 역사로

'우리 동네 이야기' 말미에는 미래에 대한 동네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동네가 발전해 나갈지를 풀어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담아내고자 한 의도였습니다. 부족한 기획이었지만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결국 동네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동네의 이야기가 되고 김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김포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특화 종합문화공간 “마산도서관으로 떠나보실래요?”

김포에는 7개 도서관(장기, 중봉, 양곡, 고촌, 풍무, 마산, 통진)과 5개 작은도서관(누리봄, 대곶, 구래, 운양, 하성)이 있다. 도서관마다 ‘청소년·평화·안보’(장기도서관), ‘향토·행정자료’(중봉도서관), ‘독립운동’(양곡도서관), ‘영어’(고촌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풍무도서관), ‘농업·생태·환경’(통진도서관)을 특화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인 지난 12월 3일 ‘여행’을 테마로 개관한 마산도서관을 찾았다.

글 김병혁 시민기자

마산도서관은 마산역에서 가깝고 주차장도 넓어서 교통이 편리하다. 주차장은 유료이지만 1시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바로 옆에는 무료공영주차장도 있다. 주택가와 공원 등 주변 환경이 좋아 조용하게 독서와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미끄럼틀 있는 유아자료실, 여행 특화자료 종합자료실

1층은 유아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이다. 유아자료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영유아들에게 안전하다. 비행기 타는 벽화와 미끄럼틀도 있어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마치 테마파크나 어린이박물관에 여행 온 듯 아이들이 신나 했다. 다만 공공장소인 만큼 미끄럼틀 탈 때 너무 소란스럽지 않도록 부모들의 배려가 필요해 보였다.

2층은 종합자료실이다. 중앙에는 ‘여행 특화코너’로 여행 관련 정보책, 수필 등이 비치돼있고, 옆에는 프랑스 ‘파리’를 주제로 한 미술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유럽,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여행책과 미술작품을 보는 동안 마음은 이미 여행을 가 있는 듯했다. 음료 반입은 안 되니 입구 보관소에 잠시 두고 이용하자.

책 추천 키오스크

노트북 자가 대여 반납기



야외무대와 연결된 다목적실, 옥상정원과 테라스

3층에는 다목적실이 있는데, 정면 폴딩도어를 열면 야외무대와 연결된다. 도서관 야외무대에서 맛보는 작은 음악회라 참 색다르다. 동아리실도 무료로 대여해 주니 동아리 공간이 필요하면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공원 전망이 좋은 북카페도 있다. 정식 오픈하면 커피도 판매하니 여행지 카페에 온 기분으로 커피 한잔 마셔보자.

4층은 옥상정원이다. 탁 트인 한강신도시와 공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마산도서관은 4층뿐 아니라 2층과 3층 곳곳에 테라스를 갖춰 여행이 주는 ‘휴식’과 ‘여유’를 쉽게 누릴 수 있다.

미끄럼틀 유아자료실



여행특화 종합자료실



도서관 직원이 소개합니다

“저희 마산도서관은요~”



Q. 마산도서관만의 차별화된 특징이 있나요?

A. 다른 도서관 운영에서 나타난 불편한 점, 시설배치, 이동 동선 등 장단점을 반영해서 건립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유아자료실은 어린이자료실과 나누어져 있어서 영유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행 테마처럼 ‘놀이와 함께 책임과 친해지자는 콘셉트’입니다. 방문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2층 종합자료실에는 ‘노트북 자가 대여 반납기’가 있는데, 도서관회원증만 있으면 노트북을 3시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여행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A. 역사여행, 미술 여행 등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테마별, 대륙별 ‘여행특화 프로그램’도 매월 1~2개씩 운영 예정이에요. 그리고 ‘야외무대와 연결된 다목적실’에서 가족뮤지컬과 문화예술 공연을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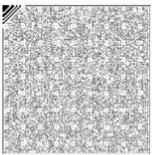
Q. 책을 추천해 주세요.

A. 1층에 ‘도서추천 키오스크’가 있어요. 성별, 나이, 관심 분야, 기분 등 본인의 현재 상태를 체크하면 책을 추천해줘요. 또한 서점처럼 추천도서와 신간 도서, 북큐레이션도 전시해두었어요. 출가분하게 저희 마산도서관에서 오셔서 추천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됩니다.

마산도서관 이용안내



- 위치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로22번길 174-6
- 운영시간 유아/어린이자료실 9시~18시 (토·일 17시)
종합자료실 9시~22시 (토·일 17시)
- 휴관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 자료대출 1인 7권 14일 (1회 7일 연장 가능)
- 연락처 031-5186-4890
- 유료주차장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 10분당 200원



김포의 미래를 여는 청년

차세대 소리꾼 양은별

김포의 청년이자 차세대 소리꾼인 양은별(24) 씨는 선인들의 지혜와 진정성, 따뜻한 위로를 소리에 담아 전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소리 외길을 걷는 그는 청년들에게 “스스로 이끄는 곳을 향해 꾸준히 걸어다 보면 반드시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글 정경욱 시민기자



김포의 국악 꿈나무에서 차세대 소리꾼으로

심금을 울린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 경쾌하고 신나는 느낌이 가요와는 또 달랐다. 특유의 미분음 소리는 마음이 간질거리는 매력이 있었다. 뱃속부터 끌어올린 소리에는 부르는 이의 진심마저 느낄 수 있었다. 우연히 접한 국악의 한 소절은 그렇게 어린 소녀 양은별에게 꿈을 심어 주었다.

이후 14년간 그녀는 한결같이 그 마음을 키워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꾼 김영임 명창의 지도를 받고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며 차세대 국악인으로서의 두각을 드러냈다. 물론 배우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컸지만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만둘 수 없었다. 가족이 보내주는 헌신적인 응원 또한 버팀목이 됐다.

“소리를 배우기 위해 김포에서 서울까지 다니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엄마는 어린 딸이 조금이라도 편히 배울 수 있도록 생업을 포기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으면서 오고 가는 길을 책임져 주셨어요. 덕분에 달리는 차 안에서 마음껏 연습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은 고스란히 그녀의 소리에 담겼다.

소리를 통해 희망을 전한다

“김포의 한 요양원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봉사를 하던 때였어요. 어떤 할머니께서 제가 부른 ‘회심곡’을 들으시더니 제 손을 잡고 영영 우시는 거에

요. ‘회심곡’은 사람이 나서 죽기까지의 일생을 돌아보는 경기민요인데요. 곡의 의미가 잘 전달된 것 같아 너무 뿌듯했어요.”

양은별 씨는 그저 국악의 어느 한 곡을 부른 것이 아니었다. 가사에 내포되어 있는 선인들의 지혜와 진정성, 여기에 따뜻한 위로까지 모두 소리에 담아 전한 것이다. 은별 씨는 바로 이것이 국악의 참 매력이며, 하면 할수록 소리가 좋아지는 이유라고 말한다.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전하고 싶다는 은별 씨. 그런 그녀가 이 자리를 빌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

‘산중의 귀물(貴物)은
머루나 다래,
인간의 귀물(貴物)은
나 하나라’

“강원도 아리랑의 한 구절인데요.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귀하고 소중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믿고 스스로 이끄는 곳을 향해 꾸준히 걸어다 보면 반드시 뜻을 이루고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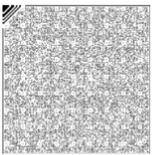
K-클래식인 정통 국악이 세계의 클래식을 주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다부진 포부를 드러내는 양은별 씨. 그녀가 내는 진심 어린 소리가 더 넓은 세상에서 울리길 기대한다.

“자신을 믿고 스스로
이끄는 곳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뜻을
이루고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양은별 활동경력

- 2021년 양은별의 경기소리 1집 앨범 <시작의 갈피> 발매
- 2017년 ~ '김영임의 소리 호 콘서트' 전국투어 정식 단원 활동
- 2015년 6.25 참전용사 위문공연 '춤 아리랑' 미국 투어 공연 (국제문화교류재단)



“김포에서 나고 자란 우리,

김포의 핸드메이드 문화 열래요”

이비그 가죽공방 류기준 대표, 정다운 시니어 디자이너

김포 제일고 선후배로 만난 두 사람이 김포의 새로운 문화 열기에 나섰다. 정겨운 동네와 사람들, 친숙한 김포라는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두 청년. 이익보다 핸드메이드의 가치와 질에 중점을 두어 예술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일조하겠다는 이비그 가죽공방의 류기준 대표(31)와 정다운 시니어 디자이너(26)를 만났다.

글 편집실(K)

작은 탕비실에서 2호점 사업주가 된 김포 청년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류기준 대표는 20대 초반, 우연히 아파트 베토크시장에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만들어 판매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 좋아 전역 후 핸드메이드 시장에 뛰어들게 됐다고 한다.

류 대표의 첫 시작은 구 경찰서 쪽 뒷 건물 작은 사무실 안의 탕비실. 그 공간에서 지금의 공동대표이자 오랜 친구 사이인 신해철 씨와 마음을 맞춰 공동으로 공방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사회적기업인 어웨이크와의 협력사업으로 북변동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도 한 그는 이후 홍대 옥탑방을 거쳐 금천구에 사업장을 열었다. 다시 고향인 김포에 2호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는 또 한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오늘도 핸드메이드로 힐링합니다”

현재 이비그 가죽공방의 직원은 류기준 대표와 정다운 디자이너를 포함해 모두 7명. 청년들로 이뤄진 이 공방에서는 제작부터 출장 교육, 인터넷 분야까지 모두 분야별로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가죽을 통해 스마트워치 시곗줄부터 전자제품 파우치, 카메라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가방,

의류, 인테리어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은 모두 제작하고 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핸드메이드가 주는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 효과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이들은 이익보다 핸드메이드의 가치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나 기관, 단체들을 통한 가죽공예 교육을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모든 공정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해 ‘단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장애인복지센터 교육 경험이 큰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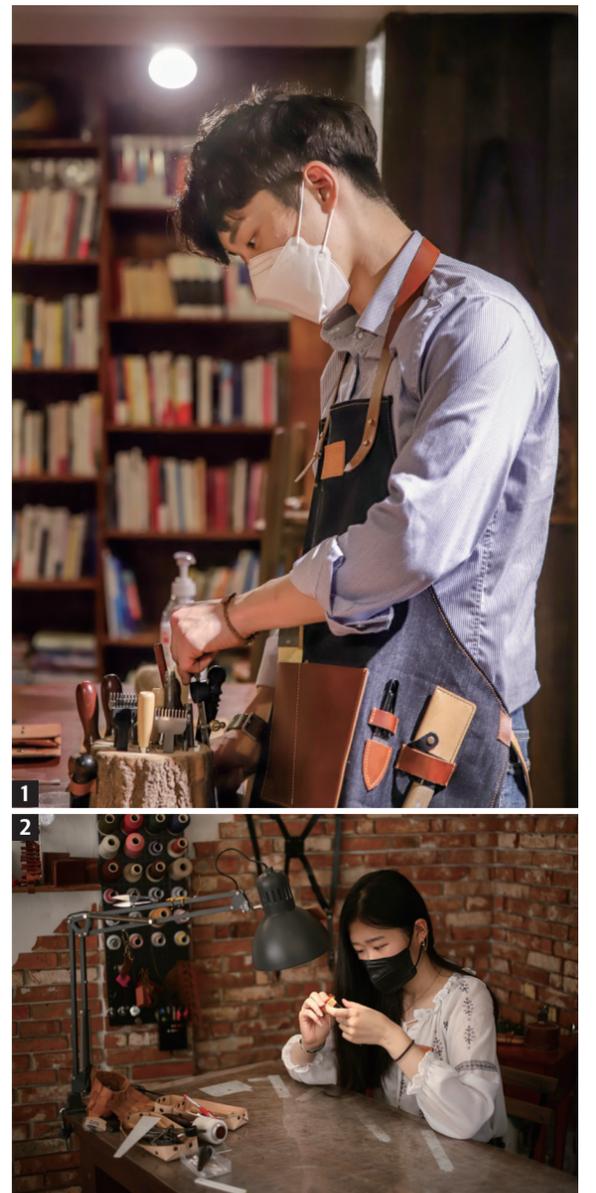
김포에서 나고 자란 류기준 대표와 정다운은 디자이너는 성인이 된 후 일을 통해 다시 김포와 연을 맺었다. 장기동 김포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처음 단체 수업을 맡은 이들은 이때의 경험이 지금의 이비그를 만들었다고 회상한다.

“일대일 수업만 하다가 처음으로 단체 수업을 진행했어요. 여섯 분 정도 참여하셨는데, 시작 전에 재미없어하시면 어떻게 할지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수업받으시는 모든 어머님이 친절히 아들, 딸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팔찌부터 카드지갑, 가방까지 3개월에 걸쳐 수업했는데 나중에는 가죽공예 수업이 기다려진다는 말씀도 해 주셔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저희 역시 미숙하지만 가죽공예라는 분야를 통해 바느질이라는 어려움의 벽을 허물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고요.”

장기동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지금은 1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업하기도, 온라인으로 단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비그 김포점, 청년들의 성장 공간으로

류기준 대표와 정다운 디자이너는 김포제일고 선후배 사이다. 김포에서 태어나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 자라온 두 사람의 첫 시작은 당연히 김포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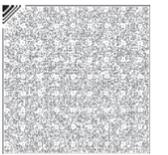
1. 이비그 가죽공방의 류기준 대표 2. 정다운 디자이너

50만이 넘는 큰 도시가 된 김포에서 원래 직장인을 위해 클래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펼쳐보겠다는 두 사람. 금천구에 이어 김포 2호점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공간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비그 김포점은 청년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될 거예요. 오직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청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화합의 공간이요.”

현재 금천구에 위치한 이비그 본점





‘김포의 봄’을 기다리는 맛의 기억 옹어, 그리고 김포 물고기



조금 가볍게, 먹거리로 2022년 한 해를 시작해보자. 김포에서 ‘옹어’라 불리는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다. 조선시대 임금 밥상에 올리기 위해 특별히 귀한 대접을 받은 녀석이다. 옹어는 갈대숲에 산란하는 습성이 있어서 갈대 위(葦) 자를 써 ‘위어’라고도 불렀다. 조선시대 임금의 식사와 대궐 안의 식자재 공급 일을 관장한 사옹원(司饔院)이 있었는데, ‘위어소(葦漁所)’라는 부속기구를 두고 녀석을 전담케 했을 정도로 특별했다. 지금은 흔치 않은 물고기지만 아는 이들은 그 맛을 첫 손에 꼽는다. 돌아오는 봄, 대명항이나 전류리 어판장에서 혹시 녀석을 만나면 주저 없이 지갑을 열어봄직하다.

글 황인문 시민기자 도움말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정현채 김포시사 편찬위원

‘의리를 아는 물고기?’ 이름도 많네

옹어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른 이름을 가졌다. 논산, 강경, 군산, 부여, 익산, 나주 등 서해바다와 접한 지역에서 잡혔는데, 지방에 따라 우어, 우여, 위어, 깨나리, 차나리, 의어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몸길이 20~30cm의 알상한 생김에 은백색 빛깔이 칼과 비슷한 모양이어서 ‘도어’로 칭했으며, 조선시대 약학사 전격인 이시진의 <본초강목>에는 제어, 열어, 멸도 등으로 기록됐다. 어린 옹어는 ‘모롱이’로 불린다. 수많은 녀석의 이름에는 모두 사연이 있겠으나, 재미있는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의어’다. 백제 멸망 후 당나라 소정방이 옹어를 맛보려 했으나 부하들이 한 마리도 잡아오지 못하자 ‘고기마저 의리를 지키려고 모두 사라졌구나’라고 말한 데서 ‘의(義)어’, ‘충(忠)어’라 불렸다는 사연이다.

사옹원은 한양과 가까운 한강하구 일대에 위어소를 두고 옹어 어획을 관리했는데, 특히 통진현 쪽에 가장 많은 어부 80호를 배정했다는 기록이 있다. 김포는 매우 중요한 옹어 어장이었던 셈이다. ‘감착관’이라는 사옹원 소속 관리들이 옹어가 회귀하기 전부터 어부들을 닦달하고 잡은 고기를 궁궐로 빼내가기 바빴다 하니, 고생한 어부들은 그 맛을 보기 어려웠다.

새벽 안개 헤치고 ‘옹어사려~’

옹어는 청어목 멸치과에 속한다. 바다에 살다가 봄이면 갈대가 많은 하구로 올라와 알을 낳고 가을이면 바다로 내려가 겨울을 난다. 성질이 워낙 급해 멸치나 갈치처럼 그물에 잡혀 육지에 올라오는 즉시 죽는다. 60년대까지만 해도 갈대숲이 발달한 전호리 쇠골나루와 풍곡리 돌방구지, 행주나루 일대에서 옹어잡이가 성했다. 냉동기술이 없었던 당시엔 벗짚으로 상자를 만들고, 상수리 나뭇잎으로 옹어를 감싸 지게에 짊어졌다. 빨리 상하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길 기다릴 새도

없었다. 새벽 안개 자욱한 마을을 헤치고 “옹어사려~” 외치는 상인의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다.

옹어는 주로 회로 먹는데,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후 뼈째 먹거나 밴댕이처럼 미나리 등 채소와 양념을 버무려 먹기도 한다. 4월에서 5월 초까지가 제철이다. 특히 단오 무렵 강어귀로 올라오다 잡힌 옹어는 뼈가 연하고 고소하다. 씹을수록 달콤한 맛이 풍미를 더한다. <본초강목>에 따르면 맛이 달고 기운이 따뜻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약으로도 쓰였다. 예부터 보리 모가지 피기 전에 먹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뼈가 억세지고 독특한 향도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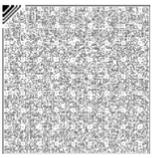
옛 책에 기록된 김포 수산물

이왕 옹어에 대해 알아봤으니 김포에서 나는 수산물도 같이 살펴보자.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김포현과 통진현에는 송어, 민어, 굴, 미네굴(土花:갯벌에 사는 굴), 쌀새우 등이 났다.

특히 조강은 황대구로 유명했는데, 배를 갈라 소금을 치지 않고 말린 대구를 말한다. 선덕(宣德) 때 명나라 사신이 황제의 명으로 구해갔다고 기록됐다. 또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들 수산물 외에도 민어, 게, 청해(靑蟹:툰날꽃게), 부레(鰓:악상어), 뱀어, 낙지, 진어(眞魚:준치), 황어(黃魚:잉어류), 붕어, 농어, 오징어, 조기, 호독어(好獨魚:꿀뚜기), 중하(中蝦:중간 크기의 새우), 곤쟁이(紫蝦) 등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염전도 두 곳이 있었다.

어촌 풍경도 삶도 바뀌었다. 철조망에 가로막힌 나루에선 옛 황포돛배를 볼 수 없다. 마트 어물전에선 먼바다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건너온 값어치 있는 물고기들이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세월 따라 변해왔다. 물속 세상도, 물 밖 세상도 바뀌었지만 달큰한 옹어향은 여전히 기억 속을 맴돈다. 다가오는 봄엔 김포 물밀 맛을 찾아 보련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해 볼까?

팍팍한 살림살이에 맞벌이는 해야겠고, 아직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돌봐줄 사람은 없고, 이럴 때면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절실히 다가온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의 잇따른 개소가 반가운 이유다.

글 이청 시민기자

초등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지난 12월 김포시가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고촌복지회관점(8일), 선수점(8일), 고창마을점(9일), 솔내점(9일), 여울숲점(15일)의 문을 열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들이라면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이었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공휴일 제외), 학기 중엔 13시부터 19시까지,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학교 휴업이나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으로 인한 비정기적 돌봄도 제공

한다.

센터에서는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는 물론 숙제 지도, 독서 지도, 예체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시설마다 20여 명의 아동을 모집했고 센터장 1명, 돌봄교사 3명이 근무인력으로 투입됐다. 아동 선발에서 1순위는 맞벌이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다. 2순위는 다자녀 가구, 3순위는 기타 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이다. 별도의 이용료는 없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운영

김포시는 우리 지역 중심의 자발적, 주도적 돌봄 공

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2019년 12월 통진의 매수리마을 점을 시작으로 현재 10개소가 운영 중이다.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에 돌봄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설치할 수 있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돌봄 서비스의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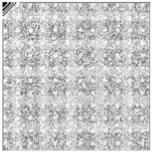
돌봄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980-5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설치현황

번호	시설명	주소	아동 정원	개소일	문의
1	매수리마을점	통진읍 마송1로 134-25, 1002동 1층(매수리마을 휴먼시아10단지)	20명	'19. 12. 27	988-4420
2	수정마을점	김포한강2로 12, 208동 1층(장기동, 수정마을 휴먼시아2단지)	25명	'19. 12. 30	984-4421
3	은어울마을점	김포한강8로 15, 515동 1층(마산동, 한강센트럴블루힐)	25명	'20. 11. 05	988-5415
4	솔터마을점	김포한강8로 333, 경로당 1층(마산동, 솔터마을NH3단지)	20명	'20. 11. 12	988-5414
5	양곡리점	양촌읍 양곡1로 80, 110동 앞 건물(김포양곡2지구휴먼시아1단지)	20명	'20. 11. 19	988-5413
6	고촌복지회관점	고촌읍 은행영사정로23번길 52-15, 2층(고촌복지회관)	20명	'21. 12. 08	987-8340
7	선수점	김포시 유현로 200, UZ센터 1층(공무동, 공무푸르지오)	20명	'21. 12. 08	987-8341
8	고창마을점	김포한강3로 290-13, 커뮤니티센터 1층(장기본동, 고창마을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20명	'21. 12. 09	987-8342
9	솔내점	김포한강2로 189, 705동 1층(장기본동, 고창마을 제일풍경채)	20명	'21. 12. 09	987-8343
10	여울숲점	김포한강8로 173-88, 606동 1층(마산동, 동일스위트더파크뷰1단지)	25명	'21. 12. 15	987-8344
계	10개소		215명		

1. 고촌복지회관돌봄센터 외부 2, 3. 아이들 활동 사진
4.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솔내점 내부)





참여·모집



통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모집
운영 2022년 1월~12월 / 월~금 15:30~19:30
 ※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돌봄 시간 변동
모집 2022년 상시모집
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40명(초등 4학년, 5학년)
 - 우선지원대상 : 사회적 배려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
장소 통진청소년문화의집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110-30 통진문화회관 2층)
거주지 운영장소로부터 20분 이내 차량 운행 가능 지역
 (통진, 양촌 일대)
내용 방과 후 체험 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비용 전액 무료(단, 교재비 별도)
신청 통진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방문 또는 전화 면담 후 참여 신청(증빙서류 구비 필수)
문의 통진청소년문화의집 997-5194

2022년 진로체험지원단 '꿈지기' 모집

모집 연중 상시모집(1~3월 집중모집)
대상 청소년 진로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전문직업체험이 가능하신 분
신청 QR코드를 통한 신청
 - **활동내용** : 청소년 진로교육 운영
 · 직업인 멘토 : 학교에서 진행 되는 직업특강 운영(해당 분야 직업소개 및 멘토링)
 · 현장 직업 체험처 : 청소년이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일터 및 직업체험 제공
 - **활동 혜택** : 김포시 진로체험지원단 위촉, 활동비 지급, 교육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추천(체험처) 등
문의 진로체험지원센터 980-1662~3



현장직업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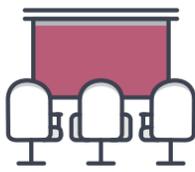


진로멘토링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 취업희망자 추가 모집

일시 접수 기간 수시
진행 주 5일, 3시간(참여비 무료)
대상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과 특수교육 대상자
내용
 - 취업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및 직장적응훈련
 - 취업 후 적응지도를 통한 안정적인 취업생활 유지
장소 사업체 또는 온라인 zoom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온라인 Zoom 변경 가능)
문의 김포시 장애인 복지관 070-7327-7100~7104

교육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온라인 심리검사

일정 월~금(9:00~18:00)
모집 연중
대상 김포관내 9~24세 청소년
장소 온라인 비대면 진행
내용 심리검사 신청 시 온라인 코드를 발송하여 각 가정에서 심리검사(성격, 진로, 학습)실시 후 비대면 해석 상담(전화, 화상) 진행
비용 각 검사당 5,000원(법정한부모가족 및 기초수급대상자 면제, 다자녀 50% 감면)
접수 전화 문의(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문의 1388전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80-1689

학교 밖 청소년 국민취업지원제도(취성패) 상담 및 연계

운영 연중 상시 모집
대상 만 15세~만 24세 학교 밖 청소년
신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중봉청소년수련관 2층)
내용 김포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문의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80-1692

김포시청소년이동쉼터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 1. 17.(월)~2. 13.(일)
대상 청소년(20세 이상) 및 청소년에 관심 있는 성인
장소 김포 관내 지역(매주 수·목·금 15:00~21:00)
활동 주 1회 이상 거리아웃리치 참석
 (활동시간 및 장소 조정 가능)
신청 지원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yes@fgy.or.kr) 접수
활동기간 3월 ~ 12월
 ※ 거리지원사업 정상운영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혜택 거리상당자원활동가 기초교육, 봉사활동확인서, 우수활동가 표창 등
문의 김포시청소년이동쉼터 980-1605~9, 1618~9

김포우리병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응급실 운영중단 안내

응급실 운영중단 기간 '21. 12. 29. ~ '22. 3. 28.(3개월)
 ※ 응급실을 제외한 외래진료 정상운영
거점전담병원 운영개시일 2021. 12. 29.
거점전담병원 지정기관 중앙사고수습본부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란?
 허가 병상수의 2/3를 코로나 병동으로 전환 코로나19 환자(중증 및 준중증) 치료병원

지원·안내



김포우체국 「오늘출발」 우편물 접수 마감시간 조정

우체국명	오늘 출발	다음 영업일 출발
김포대곶	09:00 ~ 17:00	17:01 ~ 18:00
통진	09:00 ~ 17:10	17:11 ~ 18:00
김포, 김포북변동, 김포장기동 고촌, 양곡, 김포월곶, 하성, 김포감정동(취), 김포풍무동(취), 김포구래동(취)	09:00 ~ 17:30	17:31 ~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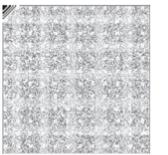
다음날 배송되기 위해서는 「오늘출발」 접수시간까지 익일특급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대기시간을 고려해 「오늘출발」 접수 마감시간 30분 전까지 우체국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2022. 1. 3.(월)
 ※ 김포우체국 이외 관내우체국은 2021. 7. 1일자로 이미 시행 중
문의 김포우체국 우편영업실 8048-0020, 0040

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모든 것

- 1. 선거일 및 임기**
 - 선거일 : 2022. 3. 9.(수)
 - 선거운동기간 : 2022. 2. 15.(화) ~ 3. 8.(화)
 - 당선인 임기 : 5년(2022. 5. 10. ~ 2027. 5. 9.)
- 2.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 거주요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 3.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 선거일 투표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2022. 3. 9.(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사전투표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2022. 3. 4.(금) ~ 3. 5.(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재외투표 :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2022. 2. 23.(수) ~ 2. 28.(월) 기간 중 6일 이내, 오전 8시 ~ 오후 5시)
 - 거소투표 : 거소투표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2022. 2. 9.(수) ~ 2. 13.(일))

문의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988-1390





편안한 일상 뒤에 숨겨진 헌신과 노력 재해 현장과 함께하는 김포시자율방재단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위해 묵묵히 힘쓰는 단체가 있다. 김포시자율방재단(단장 신현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표로 지난 2008년 7월 설립된 민간 조직이다.

글 김도경 시민기자

김포시자율방재단이란?

지역 내 지형과 수리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가진 지역주민 264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상특보 등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 예찰 활동, 사후 복구 활동 등 재난 대응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평상시에도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봉사활동을 자원해 도움을 주고 있다.

모두가 잠든 겨울 새벽, 땀나게 일해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이 가장 예민한 시기다.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단원들은 잠을 설치며 비상 대기한다. 전날 비상연락망을 통해 위치와 인원을 배정하고 이웃이 잠들어 있는 새벽부터 동네 곳곳을 누비며 눈을 치운다.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는 이면도로, 육교, 버스 정류장, 인도 등이 이들의 몫이다. 미끄러운 언덕길이나 어두운 골목 어귀는 자칫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한파가 닥치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찾아다니며 외출을 자제하라고 어르신들께 당부하고 취약계층 가정에 보일러가 터지면 집수리 전문팀이 긴급 출동해 복구를 위해 땀 흘린다.

먼저 손 내미는 단원들의 보람

유난히 비가 잦았던 2년 전 여름, 사우동 주택가에 홀로 사는 할머니로부터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방재단이 도착해 보니 반지하는 이미 물에 잠겼고 농산물과 살림살이 등이 떠다니는 상황이었다. 밤새 수중 모터를 돌리고, 바가지로 물을 퍼내 피해를 최소화했다. 고촌에 사는 노부부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쏟아지는 장대비엔 손써 볼 겨를 없이 불어난 물,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한 어르신들. 재난 재해는 어려운 이웃에 더 크게 다가

오는 법이다. 재난 현장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보람이 방재단원들이 얻는 대가다.

코로나 방역 등 지역 곳곳 안전 지킴이

자연재난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교통사고 현장, 기름 유출 방제 작업 등 사회재난 관련 활동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헌혈카페, 예방접종센터에서 방역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준수를 위한 안전캠페인을 관내 곳곳에서 펼치고 있다.

김포시자율방재단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재해의 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 김포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고 불편과 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일상생활 뒤엔 김포시자율방재단의 남모르는 노력과 헌신이 있다.

- 1. 겨울철 제설 작업
- 2. 코로나19 방역활동
- 3. 폭설 대응 훈련



독자 퀴즈

Quiz

김포 시립도서관은 장소마다 특화테마가 있습니다. 장기도서관은 '청소년, 평화·안보'를 특화로, 풍무도서관은 '메이커스페이스'를 특화로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개관한 마산도서관의 특화테마는 무엇일까요?



- 1. 영어
- 2. 향토
- 3. 여행

독자퀴즈 정답

독자퀴즈 정답과 구독소감 등을 1월 17일까지 김포시청 홈페이지(뉴스포털 → 김포마루 → 독자이벤트)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주소 김포시 사우중로1(사우동) 김포시청 홍보담당관

12월호 독자퀴즈 이벤트



강○권, 김○미, 이○희, 주○경, 전○영
손○권, 김○숙, 이○수, 박○희, 신○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사항

김포마루 우편 구독 및 이벤트에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는 우편이나 상품발송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전화나 팩스로 신청할 경우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숫자로 보는 김포

2021년 11월 말 기준(전월 대비)



남 243,279
(▲ 130)



여 242,844
(▲ 134)



인구
▲ 264

486,1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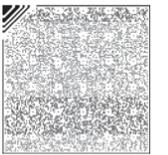
세대
▲ 272

200,502세대



자동차
▲ 342

237,577대



호랑이띠들의 새해 소망

謹賀新年

“활기찬 일상에서 웃음꽃 피웠으면”

2022년 새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새해에는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맘껏 돌아다닐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모두 사멸되길 바랍니다. 모든 시민이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 웃음꽃이 피길 간절히 바랍니다.

1986년생 유건우(장기동)

“당연한 일상이 제 자리를 찾았으면”

해마다 소풍을 가고, 친구들과 거리에서 군것질을 사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기 힘든 특별한 일이 돼버렸어요. 2022년에는 당연했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마스크 없이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못다 한 추억을 만들며 초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010년생 이도영(양도초등학교)

“김포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하늘은 높고 푸르며 땅은 깊고 기름진 나라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나라 서로 서로 도우며 평화를 전하는 나라 하늘 아래 가장 자비로운 나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여 자연 사랑하는 나라 하늘 아래 가장 한가로운 나라 잃었던 우리 기운 되찾아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루세

코로나19 몰아내 일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해서 나라와 김포의 밝은 미래 약속받고, 환갑에는 아내와 함께 동유럽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62년생 조성춘(통진읍)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일하고파”

2021년에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 인연이 2022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서로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고, 점점 어색해지는 언니가 있는데 다시 예전만큼 친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오래 일하고 싶어요.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 제주도로 가족여행도 가면 좋겠고, 제가 정말 갖고 싶은 무스탕, 가죽 자켓도 가질 수 있기를. ^^

1998년생 이수현(장기동)

“코로나19 고비 잘 넘어가길”

어느 시대나 ‘보릿고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험난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늘 그래왔듯 힘든 고개를 잘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이러다 죽겠네”가 아닌 “이제 살겠네~”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950년생 최덕례(풍무동)

“몸과 마음 건강한 한 해되길”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온 길이 행복을 향한 길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2022년은 40대를 마무리하는 해다. 올해는 자신에게 더 진실해지고 싶다. 좋은 사람들을 더 자주 보고, 여행도 다니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싶다. 후반기 인생을 시작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준비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1974년생 이호진(운양동)